

# 共產圈國家의 幼兒教育\*

——蘇聯과 北韓을 中心으로——

鄭 元 植 · 朴 性 淮

(서울大學 師範大 教授)

次>

I. 緒論	1. 教育의 目的
II. 蘇聯의 幼兒教育	2. 教育政策의 變化
1. 教育의 目的	3. 幼兒教育政策의 背景
2. 幼兒教育의 政策背景	4. 幼兒教育機關과 教員養成 制度
3. 教育政策의 變化	5. 教育內容
4. 幼兒教育機關	6. 教育方法
5. 幼兒教育의 實際	IV. 北韓· 소련의 早期教育의 效果
6. 結論	
III. 北韓의 幼兒教育	

## I. 緒論

本研究는 共產圈國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幼兒教育이 어떤 것인가를 探究하기 위한 것이다. 共產主義國家를 代表하는 나라로 蘇聯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蘇聯의 教育을 理解하는 것은 다른 共產國家의 教育을 把握하기 위해 귀중한 길잡이가 된다. 共產革命을 이루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人間像, 즉 共產主義人間像을 形成하기 위해 蘇聯은 教育의 改革을 추진하였다. 蘇聯 幼兒教育政策이나 教育一般을 이해하는 것은 또한 北韓의 教育과 幼兒教育을 理解하기 위한 하나의 定礎도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北韓의 教育을 理解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理由들 때문에 本研究에서는 北韓과 蘇聯의 幼兒教育을 규명함으로 그들이 어떤 人間을 目的으로 어떤 節次를 통해서 教育을 하고 있는가를

\* 이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제공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朴容憲 教授의 厚意에 감사를 표한다.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研究資料가 아직까지도 充分하게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제한된 資料를 根據로 연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資料들은 蘇聯과 北韓의 幼兒教育의 대체적 윤곽을 파악하기에는 그런대로 충분한 것이었다. 충분하지 못한 자료에 근거한 연구가 공허한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여기에서 研究者들은 개인적 의견이나 입장장을 주장하지 않고 客觀的으로 記述하고 說明하려고 하였다. 共產圈의 幼兒教育에 대한 批判도 留保하고 가능한 대로 事實에 충실하려고 하였다. 그리므로 이 報告書를 읽는 분들은 이 점에 留意하고 또 誤解 없기를 바란다.

## II. 蘇聯의 幼兒教育

蘇聯은 共產主義의 宗主國으로 政治·經濟的側面에서만이 아니라 教育의側面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여러 나라의 教育에 끼쳐 왔다. 특히 幼兒教育의 政策도 政治的道具의 하나로 강화되어 왔으며 共產主義의 人間型을 形成하는 데 치중하였다. 여기에서는 蘇聯의 教育目的이 어떤 것이며 그런 目的을 도달하기 위해 어떤 教育政策이 채택되었으며, 또 具體的으로 幼兒教育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찰하려고 한다.

### 1. 教育의 目的

現代共產國家를 特徵지우는 것으로 정부가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국민을組織하고 統制하여 敎化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共產國家에서의 教育은 國家의 政治的인 정책과 일정한 관련을 갖고 있다. 소련의 취학전 교육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소련은 세계에서 최초로 범국가적인 규모로 취학전 교육을 制度化하고 그 教育內容, 方法 등을 發展시켜 왔으나, 이같은 취학전 교육의 강화정책은 소련 특유의 政治的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把握해야 한다. 볼셰비키 정권은 革命初期부터 國民의 政治社會化的 道具로서 教育을 重視하였다. “모든 청년이 국가의 利益을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이익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맑스-레닌의 이데올로기의 理念으로 무장된 투사로 만드는 것을 教育의 目標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는 흐루시초프의 말은 이런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脈絡

에서 소련 정부는 <새로운 소비에트 人間>의 形成을 教育의 基本目標로 내세우고 있다. 즉 人間의 性格과 行動은 그가 속한 社會나 國家의 要求에 의해 形成된다는 理論的 根據하에서 소련이라는 國家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人格이나 性格을 갖춘 人間을 鑄型해 내겠다는 것이다(Hammer, 1974).

<새로운 소비에트 人間>이 구체적으로 意味하는 바는 <정신적 부유, 도덕적 순결, 신체적 단련>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個人個人의 人格的 發達과 自我實現을 도모하는 立場에서가 아니라 소련이라는 政治制度에 合致시키기 위해 必要한 表現的 德目으로 보는 것이 合當할 것이다.

Hammer(1974)는 이같은 人間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중시하는 教育의 價值를 크게 세 가지로 分類하고 있다.

첫째, 構威에 대한 존경이다. 권위에 대한 존경을 완전히 체질화시키기 위해 어려서부터 부모와 어른에 대한 복종을 가장 중시한다. 育兒에 관한 黨의 教科書는 “무엇보다 어린 아이는 부모와 다른 어른들에 대해 복종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들을 존경심을 갖고 대접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린 아이들이 쳐벌의 두려움 때문에 아니라 권위에 대한 존경과 수용이 완전히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어른을 존경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어린 아이에 대한 허용성과 과보호를 경고하고 있다.

둘째, 집단성의 함양이다. 소련인은 유아기로부터 個人으로서가 아니라 集團의 일원으로서의 存在라는 教育을 받으며 따라서 자기가 속한 集團속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을 가치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육아원 또는 탁아소에서는 집단놀이만을 가르치며, 장난감도 혼자 갖고 놀기에는 너무 크거나 복잡해서 결국 몇 명이 함께 갖고 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그의 친구들을 集團의 立場에서 비판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따라서 個人的 欲望이나 價值, 理想 등이 自由社會에서처럼 강조되는 일이란 상상하기조차 어려우며, 심지어 소련에서는 가족조차도 集團으로서 밀하여지기도 한다.

셋째, 노동에 대한 존경이다. 소련에서는 다른 共產集團과 마찬가지로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 이에 대한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 학생은 在學期間에 최소한 두 해 이상의 <생산적 노동>에 참여해야만 한다. 이 노동에 대한 가치는 1960년대 후반에 어느 정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노동에 대

한 존경이 教育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共產社會의 형성, 유지,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 이기 때문에 노동을 신성시하는 교육은 여전히 강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소련에서의 교육의 目的是 個個人의 自我實現이나 個性尊重이라는 教育觀은 별로 없으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의 존속과 機能維持에 필요한 행동과 性格 내지 人格을 갖춘 특출한 인간을 形成함에 있다. 환연하면 소련에서의 교육목표는 <새로운 소비에트형의 人間>, 즉 共產主義體制에만 기여하는 人間像을 造形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2. 幼兒教育의 政策背景

소련의 教育政策은 여러 차례의 改革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第一期(1917) : 블셰비키革命

블셰비키 혁명 이후 수립된 레닌 정부는 유아교육을 政策的인 次元에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위협적으로 存在하는 구봉건적 부르조아 社會의 構造를 파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과제였다. 이같은 課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레닌은 전통적인 권위주위적 가부장제를 해체하고 가족제도의 변혁과 여성해방, 여성노동력 동원 등 여성해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 혼인과 이혼의 自由化, 낙태의 合法化, 私有財產制度의 폐지, 男・女의 동등한 權利, 子女의 양육과 教育의 公務化 등의 法律的 制度정비가 그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정은 경제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여성은 남성에게서 뿐 아니라 부엌일과 자녀 양육의 일에서 <해방>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적인 개혁은 아동을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따라서 그들을 보호, 양육하고 교육하는 책임도 가정에서 國家로 移轉되었다. 유아교육을 국가공무화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아동들을 공동시설에 수용하여 보호·양육하게 되었으며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 政治教化를 早期부터 教育하도록 한 것이다.

### 第二期(1936) : 家庭과 父母의 役割 再認識

1917년 이후의 여성해방 정책은 傳統的 家族關係와 家庭의 機能 等을 弱

화시키고 여성을 家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는 일단 성공했으나 이 정책의 실시 결과 나타나게 된 不作用 또한 대단한 것이었다. 이혼을 自由化함에 따라 이혼율은 급증되었고 낙태의 합법화 조치등은 性도덕을 문란케 하여 고아, 사생아 등이 늘어나고 青少年의 非行이 늘어나는 등 社會的인 問題가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련 정부는 가족관계 법령을 개정하게 된다. 이혼의 자유화를 폐지하고 혼인과 이혼을 엄격히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며, 낙태를 불법화하고 자녀의 비행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최홍기, 1963, pp. 336~378).

그러나 이같은 方向전환이 子女教育의 國家公務化라는 大原則을 否認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子女教育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와 관련되는 사항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취급하는 점은 1917年代의 유아교육정책과는 判異한 양상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第三期(1948)：幼兒教育의 確立

1917년 10월 革命以後 실천해오던 幼兒教育政策의 미비점이 여러가지側面에서 드러나자 이미 1936年에 소련 정부는 子女教育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할 것을 골자로 하여 가족관계 법령을 대폭 수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教育改造의 손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教育內容과 方法 등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까지 확대된다. 以前에 使用하던 모든 教材는 폐기되었고 특히 政治的 教化에 目標를 둔 教育內容은 아동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놀이> 中心의 教育過程으로 대치되었다. 따라서 아동을 수용하는 모든 공동시설은 充分한 놀이터, 연구실, 음악실 등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8년에는 새로 건립되는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5% 이상을 시설용지로 확보하도록 하고 모든 공장과 농장을 포함하는 직장에서는 여성근로자 100名單位로 탁아소와 보육원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제공은 물론 그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유치원, 탁아소, 보육원 등의 시설을 개선,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였다(G.L. Kline, 1957).

따라서 이 時期는 教育內容, 社會制度, 施設 등 幼兒教育의 全般的 分野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된 時期라고 말할 수 있다.

### 第四期：幼兒教育의 擴張

1948年에 제정한 法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幼兒教育에 대한 실체적 조치를 취하고立法化하였으나 그 운영 비용의 상당부분(25~35%)까지를 부모와 부모가 가지는 직장에 부담시킴으로써 부모들이 그 시설의 利用을 회피하고 정부 당국의 재정적 빈곤으로 인한 시설투자의 부족 등으로 實效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1956년에 집권한 후루시초프는 이같은 現實을 直視하고 社會主義 建設에 必要한 精神的 기반구축으로서 新世代教育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기숙학교의 設立과 보육원과 유치원 시설의 확충을 당면화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제20차 전당대회에서는 兒童의 수용시설을 크게 확충하고 새로운 유형의 기숙학교(Internats)와 연장학교(延長學校)의 설립을決定하였고(Bronfenbrenner, 1973), 1959년에 있었던 제22차 당대회에서도 兒童教育行政의 合理的 政策을 위해서 종래에 보육원은 보건성이, 유치원은 교육성이 분담하여 관장하던 것을 統合, 一元化할 것을決定한 바 있다(Henry Chauncey, 1969). 이런 과정을 통해서 兒童을 수용할 수 있는 能力은 점차로 擴大되어 갔으며, 이같은 정책의 결과 오늘날에는 2살 이하의 소련 아동 중 10% 이상이 공공보육원에 등록되어 있고 3~6살까지의 兒童중 20%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모든 학령 아동의 약 5% 가량 —7살 또는 그 이상——이 기숙학교 또는 연장학교에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Bronfenbrenner, 1970).

참고로 시설수와 아동수로 본 소련의 유아교육현황을 보면 〈表 1〉과 같다.

〈表 1〉 소련의 就學前 教育現況(施設數: 兒童數) (단위: 1,000명)

연도 시 설	1913년	1940년	1965년	1970년	1975년	1976년
상 설 시 설 물	0.2	46.0	91.9	102.7	115.2	117.6
유 치 원	0.2	24.0	39.0	35.4	34.1	33.9
보 육 원	—	—	28.5	47.7	65.3	68.7
탁 아 소	0.0	22.0	24.4	19.6	15.8	15.0
상설시설수용아동수	5.4	1,953	7,673	9,281	11,523	12,108
유 치 원	4.0	1,172	3,281	2,791	2,591	2,559
보 육 원 (3 세 까지)	—	—	2,926	5,309	7,879	8,533
탁 아 소	1.4	781	1,466	1,181	1,053	1,016

〈자료〉蘇聯邦中央統計局, 1977年版 統計年鑑, p.519. (董 玩, 『所謂「소비에트 맨」形成에 관한 研究』, 國土統一院, 1978, p.89에서 再引用)

### 3. 教育政策의 變化

앞에서는 巨視的인 觀點에서 兒童教育政策의 背景을 살펴 보았으나, 여기서는 教育內容, 方法, 過程, 政策의 变천을 간략하게 개관해 보기로 한다. 具體的인 变천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공산주의인 소련에 있어서의 教育過程의 전반적인 性格을 고려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거니와 소련에서의 教育은 政治性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곧 그들의 教育目標, 教育政策, 教育過程 等은 一次的으로 政治的 的要求를 반영하여 수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教育政策에 多小의 變化는 있다 하더라도 그 根本的原則, 즉 共產主義社會建設을 위하여 必要한 <새로운 소비에트 人間>을 形成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이나 教育은 다만 이러한 目的을 위해서 제공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같은一般的 教育의 原則은 幼兒教育에도 同一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 幼兒期에는 지나친 政治教化를 피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指向하는 方向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과정육성의 三大原則 즉 신체적 발육과 성장을 돋는 일, 초등교육의 준비를 위한 教科의 기초지식을 갖게 하는 일, 공산주의 도덕을 습관화하는 일 등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소련의 幼兒教育의 教育過程은 여러 차례의 变화를 거쳐서 形成된 것으로, 觀點에 따라 다양하게 分類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Kline의 見解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여 개관하기로 한다.

첫째 시기는 1918년부터 1925년까지의 政治的 教化 教育을 강조한 時期이다. 幼兒教育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그런 目的에 합당한 人間을 產生해 내는 것에 教育의 촛점이 맞추어졌다.

둘째 시기는 1925년부터 1931년까지의 기술교육을 강조한 시기로서, 생산현장을 직접 구경시키면서 성인들의 노동과정에 참여하는 現場教育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노동현장에 교육원과 유치원을 병설하여 어머니의 노동을 용이하게 하고, 동시에 아동들도 노동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하려는 실체적 필요를 충족하고, 나아가서는 「교육과 生産」을 직결시켜야 한다는 教育理論에 입각한 것이기도 하다.

세째 시기인 1931년부터 1936년은 教育學의 理論의 성립시기로서 공산주의 이론과 그들의 혁명적 조건, 그리고 발달심리 이론들을 토대로 그들 나

름의 教育學理論을 정립하면서 갖가지 실험을 시도하려 하였다. 이때 제기된 이론은 環境決定論의 教育理論이며 대표적인 學子로는 마카렌코(A.S. Makarenko)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능검사등 각종의 심리특성 검사들이 제작되고 활용되기도 하였다.

네째 시기인 1936년에서 1943년까지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종전까지 시도한 교육학적 실험을 허위적이고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오히려 놀이와 음악, 이야기 등을 강조하도록 지시까지 한 바 있어 교육의 내용에 큰 변혁이 있게 된 시기이다.

다섯째 시기인 1943년에서 1956년까지는 교육과학원을設立하여 모든 교육계획과 정책수립, 교육과정개발, 교수지침 및 교과서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이래 모든 급별 교육내용을 체계화하고 黨의 승인하에 구체적인 지도지침서까지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하달하게 되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취학전 교육을 위한 「교원수칙」내지 「지도 지침서」가 1953년에 제시된 바도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지침서는 너무 지식과 교양위주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실제적 생활과 행동지도 방법을 소홀히 취급하였다하여 비판이 가해지고 다시 개편하게 된다.

여섯째 시기인 1956년에서 현재까지는 20차 黨대회에 취학전 교육의 확충과 그 內實을 강화할 것임을 의결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로 먼저 양적 확충을 시도하면서 특히 1961년에 있었던 22차 당대회에서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취학전 교육의 질적 개선을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22차 당대회에서는 생후 3년까지의 아동을 보육원에서 그리고 3~7세까지의 아동을 유치원에서 각기 분리·교육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점을 반성하면서 취학전의 전교육과정을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게 체계화할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 4. 幼兒教育機關

소련의 보육원과 유치원 등의 유아교육은 義務的인 것은 아니며 社會的, 政治的, 經濟的인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부 家庭에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 80~90% 정도의 유아들이 이러한 교육기관에 수용되어 있으므로 그 制度의 조직과 운영실태를 살펴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련의 公式的 幼兒教育機關으로는 보육원(Yasli)과

유치원(detskisad)이 있으나, 이 두 가지는 실질적인 편의나 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조직·운영되고 있다.

대개 보육원에는 4~6개월된 유아로부터 3세까지의 아동을 수용하게 되어 있으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어린 유아도 수용이 가능하다. 수용되는 아동의 연령층이 다양하므로 이들 보육원에서는 아동을 20에서 25명 정도의 연령 집단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G.L. Kline가 분류한集團의構成은 다음과 같다.

첫째, 6주에서 6개월된 집단

둘째, 6개월에서 12개월된 2차 유아집단

셋째, 12개월에서 18개월된 어린 유아집단

넷째, 18개월에서 24개월된 중간 유아집단

다섯째, 24개월에서 36개월된 상위 유아집단

보육원은 시간적 편의에 따라서 1일탁아소, 주탁아소, 계절제 탁아소 등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도 있고, 지역적 성격의 특성에 따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도시형의 보육원은 주택보육원, 공장보육원, 특수보육원, 학교부설보육원 등으로 세분되고, 농촌형의 보육원은 상설보육원, 계절제 보육원, 농지 협장 보육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규모는 작은 경우 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큰 경우는 수백명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곳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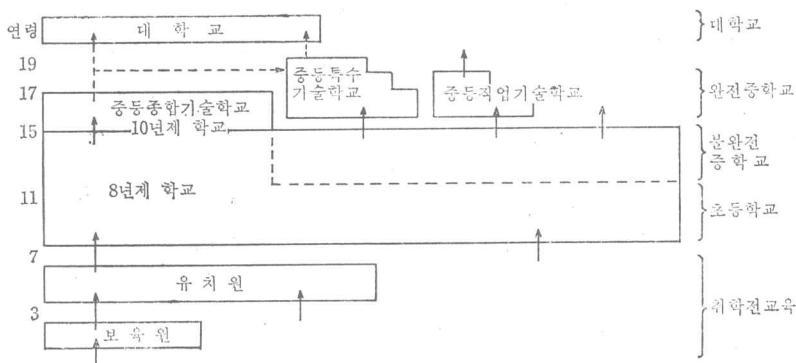
4세에서 6세의 兒童들은 유치원에 수용된다. 유치원에서도 보육원과 마찬가지로 兒童을 연령별 집단으로 나누어서 指導하는데 일반적으로는 三個集團 즉 중간집단(4세), 상위집단(5세), 학교준비집단(6세)으로 구분한다. 유치원의 경우도 도시, 농촌 등의 地域의 特性과 상황적인 변수에 따라 그 유형이 달라지는데 대체적으로 보육원의 경우와 유사하게 분류된다. 조금 특수한 것으로서 野外幼稚園이 있다. 특별한 시설의 설치없이 野外에서 할 수 있는 活動을 中心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으로서 보육원에는 없는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유치원의 규모는 보육원의 규모보다 크다.

참고로 1937년의 소련의 教育制度와 現在의 教育制度를 그림으로 보기로 한다.

〈表 2〉 1937년의 소련의 教育制度

高 等 研 究 機 關						
UMDEP 3-8 83-12 12-15 15-17 17-22 22	大 學 校 高 等 學 校			共 產 黨 員 大 學 校		
	技 術 學 校			二 次 成 人 勞 動 技 術 學 校	二 次 소비에트 黨 學 校	
	二 次 中 等 學 校				二 次 成 人 勞 動 技 術 學 校	
	一 次 中 等 學 校	職 業 學 校	勞 動 學 校	農 業 學 校	一 次 소비에트 黨 學 校	
	國 民 學 校				一 次 成 人 學 校	政 治 教 化 學 校
	幼 稚 院	斗 學 齡	前 學 校			文 盲 退 治 學 校
	保 育 院					

〈表 3〉 소련의 現行教育制度



〈자료〉 Nigel Grant, *Soviet Education*(Penguin Books, 1968), p. 74.

## 5. 幼兒教育의 實際

### 가. 教育內容

앞에서도 여러번 언급한 바 있거니와 소련 공산주의 국가에서 教育의 目的是 교육을 통한 <새로운 소비에트 인간>을 形成함에 있다. 이같은 政治的目的이 幼兒教育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강조되는 바는 아니나 그 基本的

方向은同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早期부터 집단적인 생활조건에 익숙하게 하고 공동생활을 통한 공동소유 의식을 강조하는 점 등은 공산주의 사회건설에 필요한 기본적 태도를 일찍부터 습관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때문에 幼兒라고 하더라도 個人으로서 취급되기 보다 集團의構成員으로의 存在를 강조한다. 놀이나 학습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 集團的으로 이루어진다. 장난감도 개인의 소유가 허용되지 않고 집단의 소유가 되며 또한 장난감의 놀이도 혼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한다. 그래서 장난감이나 유희시설이 여러명이 함께 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個人的目標가 아니라 어린이의 集團目標가 중시되며 集團에 귀속되는 生活習慣을 幼兒教育을 통해 기르게 된다.

소련이 幼兒教育을 통해서 아동에게 注入 또는 획득시키려는 기본적인 태도는 服從과 自己訓練이다. Volkoba(1961)는 ‘양친과 아동들’이라는 論文에서 이점을 明分히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동은 그의 양친이나 어른들에게 복종해야 하며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 아동에게 첫번째로 가르쳐야 할 것은 어른의 요구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다. 어른의 명령, 지시, 충고 등을 따름으로써 아동은 복종을 배워야 한다. 일찍부터 어른의 요구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것을 체득화함으로써 아동은 이후의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쉽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종>만으로는 充分하지가 못한 것으로 생각하여 복종과 더불어 아동은 <자기훈련>을 배워야 한다고 한다. “아동이 어른의 요구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대하고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따라서 의식적인 <자기훈련>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당연하다.”

이같은 態度教育이외에 身體의 균형있는 발달과 놀이와 음악 등을 통한 情緒的, 社會的인 發達도 유아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도 共產主義思想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르기 위한 것들이다.

#### 나. 教育方法

그러면 以上的 내용을 교육하기 위하여 소련은 어떤 양육방법을 채용하고 있을까? 여기서는 유치원과 보육원의 教育을 區分하여 생각하기로 하고, 보육원 教育중 生後 一年間의 양육方式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므로 따로 떼어서 기술하기로 한다.

## a) 生後一年間의 教育

생후 1년간의 훈련은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다.

첫째는 集團生活에 대한 初期經驗이다. 유아들은 대개 6~8명씩 짹지어져서 하나의 <놀이침대>에 배당된다. 이 놀이침대는 유아들과 보모 또는 양육자들이 서로 마주보고 접촉할 수 있도록 무릎정도의 높이로 울타리가 쳐져 있다. 이처럼 유아를 놀이침대에 배당하는 것은 아주 일찍부터 집단생활을 경험함으로써 생활공간을 집단속으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強化의 原理이다. 各 兒童은 일련의 強化계획에 따라 教育된다. 즉 보모는 정해진 일정한 시간동안 아동과 함께 있으면서 아동의 신체감각 기능을 자극하고 훈련시킨다. 서구에서 強化理論이라고 알려져 있는 강화계획이 아주 세부적으로 작성되고 그 계획에 따라 철저한 훈련이 실시된다. 첫 1년간의 유아교육은 이 두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먹이고 잠재우는 놀이를 시키는 것이외에 활동과 신경발달을 위한 지도에 역점을 둔다. 日課時間表를 作成하여 그 시간표대로 生活하는 등 시간을 엄수하는 습관도 기르도록 하는데, 유아의 일과 시간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4〉 幼兒의 日課時間表

연 령 일 과	3개월	3~6개월	6~9개월	9~12개월
먹이회수	7회	6회	5회	4회
먹이간 시간	3시간	3.30시간	4시간	4.30시간
깨어 있는 시간	1~1.30	1.30~2	2~2.30	2.35~3.30
주간 잠자는 회수	4회	4~3회	3회	2회
주간 잠자는 시간	2~1.30	2~1.30	2~1.30	2~2.30
잠자는 총시간	18~16.30	16.30~16	16~15	15~14.30

〈자료〉 Educational Testing Service, *Soviet Pre-school Education*, op. cit., p. 14.

그들은 아주 일찍부터 아동의 自立行動機能의 발달을 강조하여서 생후 18개월된 아동은 대소변을 가려야 하며 이미 스스로 옷을 입는 등 보다 복잡한 기술을 익히게 한다. 이런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능력을 배양키 위해서 이 시기에는 신경과 지각의 발달에 역점을 두어 머리, 팔, 다리 등의 움직임을 훈련시키고 색깔, 물체 등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도 훈련시킨다.

또한 언어기능의 발달을 상당히 중시한다. 보모와 양육자는 아동과 함께 있을 때마다 언어발달을 위한 훈련을 한다. 아동이 응아리를 한다거나 단음

절의 소리를 낼 때에도 그것에 반응하고 계속하도록 격려하며, 각종의 장난감, 놀이, 그림, 도구 등을 통해서 언어를 훈련시키며 모든 동작과 활동에 언어를 사용하게 한다.

아동이 특정한 단어들을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게되면 곧 짧은 구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등 언어기능의 발달은 무척이나 강조된다. 언어가 어느 정도 습득되면 양육자는 술래잡기나 또는 다른 아동들과의 놀이 등을 통해서 언어와 구체적 행동 또는 대상들을 연결짓는 등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게 된다. 그리하여 생후 9~12개월이 되면 兒童은 성인이나 또는 다른 兒童들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함께 어울리게 한다든가, 언덕에서 굴러내리고, 서로 마주보고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을 부르는 등의 집단적 놀이를 통해서 이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始初부터 아동에게 연합된 행동에 참여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태도는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된다. 흔히 인용되는 “내것은 우리것이고 우리것은 내것이라(Hoe eto narhe: Nashe moe).”라는 말은 이것을 잘 표현해 준다. 집단놀이는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게임을 함께 하는 것 뿐 아니라 심지어는 장난감도 특수하게 고안하여(대형으로 만든다든가 또는 복잡하게 만들어서) 둘이나 또는 그 이상의 아동이 함께 갖고 놀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음악도 감각 신체기능의 발달 뿐 아니라 사회적 발달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도 이용된다.

#### b) 보육원의 教育

2년째의 教育도 첫 1년째와 마찬가지로 먹이고 채우며, 시간을 염수하여 규칙생활을 하게 한다. 스스로 식사하기, 옷입기, 대소변가리기, 놀이 등의 활동을 통해서 自立行動을 할 수 있게 하며 言語도 계속적으로 훈련시킨다. 3세가 되는 兒童은 幼兒集團에서 벗어나서 취학전 아동집단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 때는 동작훈련과 활동의 다양화 훈련을 통해서 心體的 機能의 균형있는 발달을 꾀한다. 놀이, 그림, 노래 등 아동의 흥미에 적합한 기재나 도구들을 택하여 감각훈련을 시키고 아동이 느끼는 정서적 심미적 감정을 자유롭게 表現시키도록 한다.

2세 이상이 되면 아동들은 점점 더 많은 종류의 共同生活에 참여하게 되고——예컨대 아기돌보기, 장보기, 의사노릇하기, 학교에 가기 등——이로써 本格的인 社會化를 경험하게 된다. 아동이 自己를 表現할 수 있게 되면

集團이라는 觀點에서 다른 아동들의 行動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등의 훈련을 받는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점차적으로 양육자는 지도자나 조정자의 입장을 철회하고 아동 스스로가 自立的 集團行動을 形成하게 한다.

### c) 유치원의 教育

4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학습의 目的是 공동생활의 의미를 理解하도록 하 고 身體와 精神을 단련하여 노동을 좋아하며 他人을 위해 봉사하며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습과정은 실제적인 生活環境에 대한 知識을 획득하고 地域社會 주민들의 생활양식을 理解하도록 하는 것을 中心으로 짜여져 있다. 유치원의 教育에서 강조되는 것 중의 하나는 노동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이에 대한 態度를 함양시켜서 협동적인 노동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4세에는 식탁 준비하기, 청소하기, 정원정리하기, 동물기르기, 눈 치우기 등의 노동활동에 아동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협동심을 키우도록 하고, 5~6세가 되면 실제적인 노동현장을 참관할 뿐만 아니라 적은 일을 실습하기도 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에 대한 애국심 배양도 이 시기에 시작된다(GS. Counts, 1948). ‘위대한 조국을 사랑하고 붉은군대에게 사랑과 존경을’ 주입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게임과 놀이가 고안되어 있다.

참고로 〈세계의 취학전 교육〉에서 박용현(1981)이 지적한 바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의 일과계획은 주로 연령별로 구분된 집단별로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 연령별 집단이란 ① 중간집단(4세), ② 상위집단(5세), ③ 학교준비 집단(6세) 등이다. 4세 아동들을 위해서는 유치원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일과 교통 및 생활규칙, 시설이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일과를 계획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상위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과는 유치원이 위치한 마을과 지역사회에 관한 것, 공공기관·건설현장·직장·집단작업장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준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과는 학교·소년단·집단농장 및 작업장, 지역의 자연환경, 주요 명승지, 주요 도시 등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며, 정규학습 시간을 연장하여 읽기·쓰기·셈하기 등 학습의 기초능력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 5. 結 論

以上에서 소련의 취학전 教育의 成立背景, 政策의 變化, 教育內容, 方法制度, 體制 등을 살펴 보았거니와 그 두드러진 特징을 몇 가지로 分類하여 요약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는 幼兒教育의 政治性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政治와 연结되지 않은 教育이 있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共產主義 國家인 소련에서의 幼兒教育은 순전히 政治的 目的과 背景이 그 出發點이 되고 있다. 소비에트 공산주의 건설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성해방>이라는 정치적 조취를 취해야만 했고 이로 因한 家庭의 經濟機能, 教育的 機能의 파괴는 必然的으로 幼兒教育을 國家의 公務化事業으로 전환 시키게 하였다. 이리하여 形成된 보육원과 유아원에서는 집단화의 生活化를 통해서 兒童의 初期부터 <새로운 소비에트 人間>을 形成하기 위한 政治教化 教育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소련의 幼兒教育은 철저하게 政治的임을 알 수 있다.

둘째는 幼兒education의 中央集權化이다.

國家의 政治的인 目的에 의거해서 教育은 國家事業으로 간주되므로 教育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도 中央政府가 관장하여 조직·운영한다. 아동 수용 시설, 양육과 훈육 방법, 교원 인사제도 등이 政府와 中央黨의 통제에 의해 서 계획, 실시되며 부모의 역할은 일부의 운영비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친다. 따라서 教育制度는 획일적이며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고 아동 개개인의 흥미, 적성, 개성등을 무시한다.

세째는 家族政策과의 밀접한 관련성이다.

1917년 레닌 혁명 이후 <여성 해방>이라는 政策的 目的에 의해 전통적 가족 구조가 해체되고, 자녀 양육의 책임은 父母에게서 國家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실시결과 여러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소련 정부는 수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녀의 양육과 훈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다시 부과하게 된다. 이런 정책은 아동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부모의 정부가 共同으로 兒童의 教育을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부모는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教育法이나 內容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할 수가

없고 그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고작이다. 현재 소련의 취학전 아동의 수용능력은 전체적으로 25%에 불과해서 아동교육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가정보다 약한 것으로 볼 지 모르나 도시의 경우는 거의 90%의 아동이 공동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그 수용인원이 계속 늘어남을 볼 때에 아동교육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째로 교원양성제도의 체계화이다.

앞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유아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양성제도는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다. 보육원과 유치원에서는 정규교원·보모·소아과 의사 등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교육을 담당하는데 이들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제도는 별도로 수립, 운영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보육원의 양육·훈육 방법은 상당히 체계화되고 정규화되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II. 北韓의 幼兒教育

여기에서는 北韓의 幼兒教育이 어떤 教育政策을 背景으로 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일반적인 教育의 目的을 살펴보고 그런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教育政策, 教育內容이 어떤 것인지를 다음에 설명하고 있다.

#### 1. 教育의 目的

北韓에서 教育의 目的是 北韓의 政治的 體制에 적합한 共產主義 人間을 造形해 내는 것이라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1977년 발표된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테제〉에도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社會主義 社會에서 教育의 目的是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原則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 다시 말하면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노동계급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는 데 있다.” 즉 社會主義 또는 共產主義를 建設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主人인 〈人民〉들을 共產主義의으로 教養·改造하여야 하는 데 이를 위해 필요한 道具가 教育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教育은 共產主義 革命의 勝敗와 民族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根本 問題의 하나로 간주되고 民族

的 繁榮과 社會的 進步의 碩石으로 重視된다. 이런 前提下에서 北韓은 共產化 初期부터 教育 事業을 強調해 왔고 最近에 와서 〈社會主義 教育事業〉이라는 이름하에 그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이론바 〈社會主義 教育學〉의 基本原理, 教育內容 等을 살펴보기로 한다.

#### 가. 〈社會主義 教育學〉의 基本原理

社會主義 教育은 사람들을 自主的이며 創造的인 社會的 存在로 키우는 事業으로서 그 教育의 目的是 사람들을 自主性과 創造性을 가진 共產主義的 革命人材로 키우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教育學의 基本原理는 사람들을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하는 것이다. 이것을 實踐하기 위한 方案으로써 첫째는 思想改造를 강조한다. 人間改造는 本質에 있어서 思想改造이며 共產主義的 人間을 키우는 領域에서 基本은 共產主義思想으로 武裝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科學知識을 所有하는 것이다. 自然과 社會를 改造하는 人間의 創造的 活動은 科學knowledge에 의하여 밀접히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主義 教育에서는 사람들에게 人類가 이룩한 科學과 技術의 成果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며 세계를 깊이 認識하고 革命的으로 變革할 수 있는 認識能力과 實踐能力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는 건강한 체력의 형성이다. 건강한 體力を 가지지 않고서는 自主的이며 創造的인 活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結論으로 말해서 전면적으로 發展된 共產主義的 人間, 自主的이며 創造的 人間을 키우기 위한 〈사회주의 교육〉에서는 思想敎養을 위주로 하면서 知識敎育과 體育敎育을統一的過程으로 다같이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교육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教育에서 黨性, 勞動階級性을 具現하여야 한다. 즉 사회주의 교육은 당의 革命思想을 唯一한 指導的 指針으로 삼고 그에 基礎하여 共產主義 主體思想을 指導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教育에서 主體를 세워야 한다. 모든 나라의 具體的 環境과 條件에 다 들어맞는 教育理論이나 經驗은 있을 수 없으므로 教育에 관계되는 모든 理論, 實踐의 問題를 北韓의 現實과 革命의 利益에 맞도록 自主的이며 獨創的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北韓이 歷史, 文化, 社會 等에 대한 客觀的 認識을 바탕으로 한 主體性이라기 보다는 共產主義 理論에 立却하여 개조된 사상은 바로 主體的인 것이라는 等式에서 理解되어야 한다.

셋째로 教育과 革命 實踐을 結合하여야 한다. 實踐은 認識의 出發點이며 真理의 基準이며 理論 發展의 原動力이라는 觀點에서 實踐과 結合된 教育만 을 價値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革命 實踐과 結付되지 않은 純粹理論 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배척한다.

넷째로, 社會主義國家教育事業을 責任지고 組織・進行한다. 즉 社會主義 國家는 革命鬪爭과 建設事業을 組織・進行하는 데서 언제나 教育事業 즉 共產主義的 人間改造事業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社會主義 教育>의 內容

社會主義 教育의 內容은 사람들을 革命化, 勞動階級화하며 知・德・體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키울 수 있도록 構成되어야 한다. 그 具體的인 內容을 보면,

첫째, 政治・思想教育이다.

共產主義的 人間造形에 있어서 一次的으로 強調되는 것이 政治・思想教育이며 科學・技術教育과 體育教育은 政治・思想 教養 教育의 基礎 위에 이루 어지는 것으로 본다. 정치・사상교육에서 가장 강조되는 德目은 主體思想의 確立이다. 黨政策教養과 革命傳統 教養 등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당의 혁명사상으로 퉁퉁히 무장하고 당의 路線과 政策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革命戰士가 되도록 教育하는 것은 主體思想의 教育이라고 한다. 둘째로 학생들에게 노동계급의 革命意識과 共產主義 道德으로 武裝시키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상에서 核을 이루는 것은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이므로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階級教養을 教育해야 한다. 혁명의 怨讐들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배양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樂觀的 信念을 注入한다. 이를 위해서 社會生活의 기초로서 集團主義를 習慣化하도록 한다. 셋째로 社會主義 愛國教養을 強化한다. 社會主義 愛國은 노동계급의 政權과 社會主義 制度와 自立的 民族經濟와 친란한 民族文化가 있는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을 말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社會主義的 準法精神을 教養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정신으로 무장시켜서 세계 혁명의 승리를 위한 確信을 갖게하는 것 등이 主內容이다.

둘째, 科學技術教育이다.

科學技術教育도 철저히 黨政策化하면서 모든 科目的 教授內容도 北韓의 具體的 現實과 결부시키도록 애쓰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배우는 教育內

容은 그들 革命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며, 배운 知識과 技術을 革命 實踐에 能熟하게 活用할 수 있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各級學校別로 배워야 할 技術教育의 內容을 特殊化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體育 education이다.

위의 政治思想教育과 科學技術教育이 効果的으로 修行되기 위해서・青少年學生들의 體力이 增進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張하고 있다. 특히 신체발육이 왕성한 시기인 初等學校와 中等學校에서는 體育education을 強化하고 있다. 體育의 大衆化, 生活化에 力點을 두고 各級學校에서는 광범위한 학생들을 망라하는 集團的인 體育活動을 일상적으로 많이 하도록 하고 있다.

以上에서 1977년에 발표된 소위 〈社會主義 教育 泰則〉를 중심으로 北韓教育의 目的과 그 內容을 살펴보았거니와 北韓에서의 教育은 國家의 政治的目的과 뗄수 없는 밀접한 關係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여 教育은 完全히 中央集權化하여 있고 國家의 계획적, 확실적 통제에 의해서 教育計劃이 수립되고 組織・運營된다. 그러므로 北韓의 就學前兒童教育의 경우도 역시 이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 2. 教育政策의 變化

北韓의 幼兒教育體制의 諸般內容을 理解하기 위하여 먼저 그들의 教育政策의 變遷過程을 알아 보는 것이 그 순서일 것이다.

北韓의 教育政策과 制度는 1945년 이후 현재까지 편의상 4개의 時期로 구분할 수 있다(국토통일원, 1979).一期는 1945년에서 1950년까지 二期는 1951에서 1959년까지 三期는 1960에서 1971년까지 四期는 197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분류할 수 있는 데 여기서는 각 期別로 중요한 教育政策의 變化를 기술하기로 한다.

I期는 소련을 模倣하는 시기이다.

共產政權이 들어서면서 政治的으로는 맑스-레닌주의를 도입하였다. 教育的으로는 소련의 基本 學制 等을 모방하였다. 日帝教育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文盲退治教育과 成人教育을 強化하는 등 〈人民教育改革〉을 내세우고 그 방안의 하나로 全般的 義務教育制의 實施를 構想하다가 1950년에 初等義務教育의 實施를 계획하게 된다. 맑스-레닌주의 學習을 強化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증설하는 등 당 간부 양성에 주력을 기울이는 한편 노동 生産을 증

대시키기 위하여 生產技術學校를 증설하고 직장 단위별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5-3-3-4制를 기본학제로 하고(1946) 一般教育體系, 成人教育, 特殊教育體系를 分離하는 등 學制의 復線化를 실시했다. 幼稚園 教育도 3년으로 延長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Ⅱ期는 階級鬪爭意識을 強化하고 階級教養을 確立하려는 시기이다.

六·二五 以後 戰後復舊事業과 人民經濟의 改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동원을 빈번히 하였고 공산주의 의식을 주입하기 위하여 계급투쟁 교육을 강화하였다. 1953년에는 教育科學研究院을 창설하여 教育에 對한 科學的 探究를 시작하여 1956년에 四年制 人民學校 教育을 義務化하고 58년에는 4-3-2-2-4制로 學制를 改編하였다. 59년에는 7년제 中等義務教育을 실시하는 등 義務教育體制를 대폭 연장하고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폐지하였으며 學生을 일정기간 동안 노동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學生社會義務勞動制를 確立하였다. 이 시기에도 技術教育은 계속 강조되었으며 종래의 成人學校는 勤勞者學校로 개편된다.

Ⅲ期는 主體型의 共產主義의 人間像을 確立하는 時期이다.

공산주의 사회 특히 北韓社會에 적합한 人間을 造形해 내기 위하여 主體確立과 黨性強化라는 이름아래 意識改造作業을 제창하고(1961) 共產主義鬪爭의 核心인 혁명전통교양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Ⅲ期에 있던 學生義務勞動制를 體系化하고 強化하여 〈千里馬運動〉으로 개칭시행하였고(1961) 〈民青〉을 〈社勞青〉으로 組織을 改編하고 강화하였다(1964). 종래에 4-3-2-2-4로細分되었던 學制를 4-5-2-4制(1966)로 개편하였고 技術教育을 9年制 義務教育으로 변경 실시하였다(1967). 1968년에는 이른바 〈社會主義教育學 原理〉를 제시하여 教育, 生產 理論, 實踐을 累積시키는 教育學 理論을 나름대로 體系化하여 各級 教育機關에 적용하였다. 또 이 시기에는 師範教育體制를 體系化하기도 하였다(1967). 3년제 고등사범학교를 設立하여 教養員을 양성하고 人民學校 教師를 養成하기 위해 4년제 교육대학을 설치한다. 또 中·高校의 教師 養成所인 師範大學의 연한은 4~5년으로 확장시켰다.

Ⅳ期는 唯一思想 教育體系 確立의 時期이다.

金日成 唯一思想體系를 確立시키기 위하여 각급학교에서 김일성주의 교육을 強化시켜 나갔다. 主體確立이란 곧 金一成主義 確立이라는 等式下에서 金日成 偶像化가 頑固적으로 強調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종래에 소중

히 하던 基礎科學教育을 중시하였고 學制도 새롭게 개편하여 4-6(4:2)-4制로 하였다(1972). 특히 全般的 10年制 高中義務教育의 實施로 11年制 義務教育制度를 確立하였으며(1973) 就學前 1년간의 幼稚園 教育도 義務化하였다(1975). 1976년에는 最高人民會議에서 소위 〈保育教養法〉을 의결하여 취학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就學前 人口의 全兒童을 각종 共同施設에 수용하여 교육을 強化하고 있다.

以上에서 北韓의 教育政策의 變化를 살펴보았거니와 그 基本的인 方向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教育의 政治的 手段性

둘째, 生產勞動力 動員 強調

셋째, 勞動·技術教育 強調

네째, 教育, 生產, 理論, 實踐教育의 直結

다섯째, 全般的 無料教育 實施

여섯째, 早期教育 強調

### 3. 幼兒教育政策의 背景

북한의 유아교육정책은 소련의 그것을 모방하여 수립된 것이며 그 교육정책이 成立하게 된 배경 즉 家族政策, 男·女平等化政策, 女性勞動力政策 등도 소련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종래에 사장되어 왔던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해방시켰고 이로 因해 수많은 幼兒들을 共同施設에 수용할 필요가 생기는 등 전체적인 경향은 소련과 비슷하다. 우리는 앞에서一般的인 教育政策과 制度의 變化를 살펴보았거니와 여기서는 幼兒教育에 촛점을 맞추어서 그 政策的 背景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北韓이 幼兒教育의 必要를 처음으로 느끼게 된 것은 1946년 2월 〈임시인 민위원회〉를 組織하면서부터이다. 링스-레닌 主義의 原則과 소련의 政治制度를 模傍하여 政治制度를 構成하고 이를 밀반침하기 위해 傳統的인 經濟制度와 家族制度를 改革하기에 이른다. 물론 소련이 失敗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婚姻과 離婚을 自由化하지 않는 등 상당히 제한적인 가족개혁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남·녀 평등화정책에 따라 혼인과 이혼에 남·여 평등권을 보장함으로써 이혼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 여성의 노동력동원에 따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는 아동들이 자연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47년 6월

소위 〈북조선 인민위원회 보건국〉은 託兒所 規則을 처음으로 제정, 공포하였고 1949년 2월에는 保健省 規則 第一號에 依據, 託兒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북한연구소, 1978).

- 1) 託兒所는 산후 1개월부터 만 3세까지의 유아를 양육한다.
- 2) 託兒所의 施設規模는 幼兒 1人當 2~5坪의 전평과 幼兒 1人當 4坪 以上的 大地가 있어야 한다.
- 3) 간호원 및 보육원, 보조원은 매 유아반에 1명씩 배치한다.
- 4) 각 반의 유아수는 17~18명으로 한다.

1950년에 빌랄한 6·25동란은 幼兒教育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동란으로 인한 40여만명 이상의 전쟁 미망인 발생, 남편의 越南으로 인한 獨身母의 증가, 孤兒의 급증, 전후 복구사업을 위한 여성노동력 동원 등등은 유아들을 수용하여 양육할 수 있는 託兒所나 保育院의 規模를 대폭적으로 확장하도록 하였다. 1954년부터 北韓은 農業集團化政策을 추진하는 등 農土, 重要產業, 商工業 등 諸般事業을 國有化, 集團化하는 데 (1958) 이것과 병행하여 家族政策도 많은 變化를 겪게 된다. 가정이 共產主義社會 建設을 위한 社會的 basic 單位 또는 革命課業 推進의 세포로 그 기능이 변화됨에 따라 가족의 해체가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1955년에는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공민제도를 실시하면서 합의이혼 절차를 폐지하며 이혼을 防止하는 등 家族安定化 政策을 취하였으나 전쟁 고아와 노동에 동원되는 여성의 자녀를 수용해야 하는 등 유아보호사업은 계속 강화된다. 1954년 상반기 동안 託兒所의 幼兒數 1953년의 190.8%가 증가하였고 이 시기에 탁아소, 육아원, 산원(產院)시설 등은 대대적으로 확충되었다.

1960年代는 북한의 가족 정책이 궤도 수정을 하는 시기이다. 가정의 경제적 기능을 박탈하고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해방하여 여성노동력을 확보하는 등 가족의 傳統的 機能을 해체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가정의 教育的 機能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다. 이른바 共產主義的 人間改造라는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낡은 思想과 낡은 習慣〉 등을 뿐리 뽑아야 하는데 그 진원지인 가정에서 教育的 機能이 지속될 때 이 목적은 쉽게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初期에 자녀의 양육과 훈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부모에게 과하던 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가정의 教育的 機能을 박탈할 것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託兒所, 保育院, 幼稚園 등의 취학전 교육과 정

규학교에서도 思想教育을 強化하고 여성을 통한 가정의 思想改造를 강화하게 된다. 1961년에는 〈어머니 학교〉를 설립하여 政治敎化學習을 강화했고 1968년에는 여성을 중심으로 〈家庭의 革命化 運動〉을 전개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정의 教育的 機能을 弱化시키고 박탈하는 동시에 가정이 共產主義 思想敎育의 產室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가정의 혁명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1970년 11월에 개최된 당 제5차 대회에서도 모든 수준과 차원의 혁명화의 거점으로서 가정의 혁명화를 강조한 바 있고 1972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도 〈국가는 사회의 細包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제63조)〉라고 하여 가정을 社會組織의 細包的性格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부모로부터 전승되는 〈낡은 思想과 習慣〉을 근절하고 가정을 사상敎育의 學習場으로 만든다는 것의 한계를 분명히 認識하고 의도하는 바 政治敎化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녀를 조기부터 부모에게서 분리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리하여 197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에서 〈어린이 保育敎養法〉을 제정·공포하여 早期敎育을 義務化, 制度化하게 된 것이다.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제정한 북한의 표현된 의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어린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양육하고 교육한다.

둘째, 어린이들을 과학적·문화적으로 키우기 위한 선진적 제도를 마련한다.

세째,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 혁명적 제도를 수립한다.

네째, 여성들로 하여금 자녀를 키우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여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적극 보장하고 그들의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다그치게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어린이 保育敎養法〉을 선포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는 전통적인 가정중심의 생활양식을 파괴하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박탈하는 동시에 조기부터 정치사상敎育을 실시하여 북한의 사회체제에 알맞는 方式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산주의 인간을 주형해 내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끌으로 北韓의 幼兒敎育擴張政策에 따른 託兒所와 幼稚院의 數字가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면 表 5와 같다.

〈표 5〉 북한의 탁아소·유치원 현황(1946~1978)

연도 구분	1946	1949	1953	1956	1960	1966 <sup>(1)</sup>	1975 <sup>(2)</sup>	1976 <sup>(3)</sup>	1978 <sup>(4)</sup>
탁아소수 (개 소)	-	12	64	224	7,626	23,251	6만여 개(유치원수포함) 약 350만(유치원 수포함)	6만여 개(유치원수포함) 약 350만(유치원 수포함)	6만여 개(유치원수포함) 약 350만(유치원 수포함)
수용인원	-	620	2,165	6,538	394,489	877,000	6만여 개(유치원수포함) 약 350만(유치원 수포함)	6만여 개(유치원수포함) 약 350만(유치원 수포함)	6만여 개(유치원수포함) 약 350만(유치원 수포함)

연도 구분	1946	1946	1953	1956	1960	1963	1966	1975	1976	1978
유치원수 (개 소)	64	116	19	173	4,470	5,667	15,218	상기 랭 참조	상기 랭 참조	상기 랭 참조
수용인원	3,918	8,656	1,048	12,015	295,485	587,859	790,000			

〈자료〉『朝鮮國民經濟發展統計集』(東京：朝鮮研究所, 1965), p. 36; 『조선중앙년감』,(1964), p. 204, p. 328,

〈주〉(1)『조선중앙년감』(1966~1967), p. 170.

(2)『조선중앙년감』(1976), p. 335.

(3)『로동신문』, 1976. 4. 30., p. 5.

(4) 平壤放送, 1978. 3. 20.

#### 4. 幼兒教育機關과 教員養成制度

北韓의 幼兒教育機關은 託兒所와 幼稚園으로 構成되어 있다.

##### 1) 託兒所

託兒所는 생후 3개월된 유아로부터 3세까지의 兒童을 對象으로 한다. 託兒所는 兒童을 위탁하는 시간에 따라 1일 탁아소, 주(週)탁아소, 월(月)탁아소로 구분된다. 1일 탁아소는 출근시(대개 아침 6시)에 아이를 탁아소에 맡겨두고 퇴근시에 테려가도록 되어 있고 주 탁아소, 월 탁아소는 장기간 동안 탁아소에서 위탁하여 주야로 양육하고 훈육하도록 되어 있다. 初期에는 대부분 1일 탁아소였으나 어머니의 노동시간 연장으로 인하여 現在는 주 탁아소, 월 탁아소로 운영되는 것이 많다.

탁아소의 규모, 시설, 운영 방법 등은 지역에 따라 다른 데 農村型의 것은 대부분 小單位로 운영되고 都市型은 大單位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都市型의 하나인 구성방직공장 탁아소는 약 3천여명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 2) 幼稚園

유치원은 4세에서 5(6)세까지의 아동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 유치원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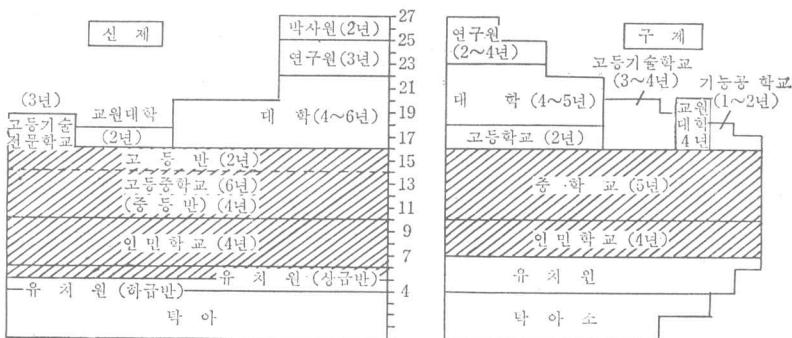
한은 1972년 전까지는 4세에서 7세까지 3년제였으나 1970년 이후 종전의 9년제 의무교육을 10년제로 연장하고 〈人民學校〉 입학연령을 종전의 만 7세에서 6세로 앞당김에 따라 3년제 유치원은 2년제로 단축하게 되었다. 2년제 유치원은 다시 상급반과 하급반으로 구분되는 데 상급반 1년은 義務化되어 있다. 이와같은 유아교육정책은 1972년 7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제5기 4차 전원회의에서 보고된 〈10年制 高中義務教育制度實施〉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1972년부터 〈10年制 高中義務教育〉을 부분적으로 실시하며 수년내에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 2) 10년간의 학교 의무교육과 1년간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도로서 입학연령을 1세 앞당겨(만 6세로) 학교에 보내어 高等中學까지의 교육을 의무교육 단계로 발전시킨다.
- 3) 의무교육 기간중 사상·정치교육 과목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자연과학의 기초과목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재편성 한다.
- 4) 교원 및 교양원 양성 규모를 늘리고 이들의 政治實務的 資質을 높이며 각종 교재의 생산을 확대한다.
- 5) 학교 시설과 유치원 건설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 6) 〈全般的 10年制 高中義務教育〉은 학교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革命的 世界觀의 골격을 튼튼히 세워줌으로써 사회의 革命化, 勞動階級화와 社會主義 工業化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리어 나라의 발전과 통일 위업을 앞당기는 일대 사업으로 한다.

이와같은 계획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유치원 상급반 1년은 1975년 〈全般的 11年制 義務教育〉 실시 이후 義務教育化하게 되었다. 유치원도 1일 유치원과 주 유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대부분 1일 유치원이다. 유치원의 규모는 탁아소의 경우와 비슷하여 農村型은 小單位의 것이고 都市型 즉 공장, 협동농장 등에 달린 것들은 大單位로 운영된다. 당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협동농장, 직장, 공장 등에서 관리·운영하고 도시의 유치원은 각 동(洞)별로 운영하기도 한다. 참고로 북한의 교육제도를 도표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政策과 制度의 變遷을 거쳐서 탁아소와 유치원의 시설과 그 수용 능력은 계속 확충되어 오다가 1975년에 이르러서는 취학전 아동의 거의 전

〈表 5〉 북한의 신구 교육제도의 비교



〈주〉 ① 줄친 부분은 의무교육 기간

② 구제는 9년제 의무교육 제도이며, 신제는 11년제 의무교육 제도

③ 신제는 1975년 9월부터 실시된 것임.

인구를 탁아소와 유치원에 수용하여 양육·훈육하게 되었다.

### 3) 教員養成制度

就學前 教育의 교원 양성은 1967년 9년제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고등 사범학교를 신설하여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고등사범학교는 3년제로서 5년제 중학교 교육을 받은 자가 입학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72년 이후 기본학제가 개편됨에 따라 教員養成體系로 變化되어 유치원, 교양원은 2年制의 教員大學에서 養成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교원대학은 종전의 고등사범학교 내지 교양원대학을 개편 혹은 신설한 것으로서 유치원의 教養員과 人民學校 教員을 養成하는 두 가지 機能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조선중앙연감, 1974). 현재 교원대학은 11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託兒所의 保母를 養成하는 正規 教育機關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아마도 일단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充員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 5. 教育內容

北韓에서는 政治社會化的 수단으로 교육을 강조한다. 따라서 北한사회의 모든 成員들은 就學前 教育, 學校 教育, 成人 教育을 통해서 일생 동안 끊임없이 政治教育을 받는다. 그런데 취학전 교육, 학교 교육, 성인 교육은 成長期에 따르는 順次的인 教育段階로서 教養教育의 연속적 과정이므로 취학

전 교육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幼兒期에는 思想이 形成되고 知的發展이 이루어지는 時期이므로 이때의 教養教育은 그만큼 강조된다. 北韓에서의 教育目的은 前述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적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장하는 혁명가를——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黨의 唯一思想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하여 그들을 김일성에게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교육·교양하는 것〉(教育學 1969)——양성해내는 데 있다. 이러한 教育目的은 유아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1) 託兒所의 教育內容

소위 金日成 唯一思想을 早期부터 심어주기 위해서 탁아소에 맡겨진 유아들이 言語를 습득할 수 있게 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김일성 어버이〉이다.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 등등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김일성의 恩惠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에서든지 〈김일성 어버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반복시키고 그 초상화 앞에서 경배하도록 한다. 〈어린이 보육 교양법〉의 제안 취지와 지지찬동 연설의 내용을 보면 김일성 유일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한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모든 어린이들은 김일성 수령에게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내겠으며……이 땅에 태어난 새 세대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말은 어버이 김일성 원수님이라는 영광스러운 존함이오, 처음에 배우는 노래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이며, 가슴속에 가장 깊이 간직되는 것은 어버이 수령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며……우리의 어린이들은 아침마다 탁아소, 유치원에 나오면 아버지 김일성의 아들, 딸이 되고자 맹세하며,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김일성 수령에게 감사부터 드립니다”(국토통일원, 1977). 국토통일원(1978)에서 귀순자들과의 면접 연구를 통하여 제시한 북한의 탁아소 교육내용을 보면 對韓·對美敵愾心 고취를 포함한 공산주의 이념 주입이 49.7%, 집단의식 배양이 14.2% 노래·춤·전쟁놀이·기타 7.1%, 무용답이 29%로 나타나 있다. 이같은 반응을 볼 때 북한 탁아소의 교육내용은 노래·춤·전쟁놀이 등과 같이 아동의 생리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법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이념을 注入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2) 幼稚園의 教育內容

유치원에서는 혁명사상교육과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고 知的發展에 필 요한 교육과 신체 단련을 하는 등 탁아소보다는 다양한 活動을 하도록 하고

있다. 金日成偶像化, 共產主義 道德理念 注入, 對南・對美 敵愾心, 好戰的  
鬪爭意識 등 정치교화교육은 탁아소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데 教授方法은 노래와 유희, 그림극, 활동극, 시청각 교육, 집단  
놀이, 집단 체조, 동화, 동요, 동시, 견학 관찰 등 다양하다. <사회주의 교  
육 체제>에서도 지적한 바 있거니와 유치원 교육은 어린이들의 생리적 특성  
에 맞게 관찰과 실물을 통한 수업, 노래와 춤, 놀이를 통한 교육을 비롯하  
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잘 배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아  
동이 쉽게 친근미를 느낄 수 있는 노래, 동화, 동시 등에 공산주의 이념이  
나 김일성 우상화에 관한 내용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아동의 몸에 체득시키  
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동요 : <원수님의 사진은 언제봐도 기뻐요. 우리들이 어느 때나 보고싶은  
원수님> <아침마다 만나는 인민군대 아저씨 발맞추어 하나 둘 함께 가지요>

노래 : 제목(살기 좋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남쪽에는 미국놈이 주인 노  
릇을 하면서 우리와 같은 어린이들을 못살게 굽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김  
일성 원수님이 모두 똑같이 부지런히 일하고 잘 살도록 만들어 주어 세상에  
서 제일 행복하답니다>. 제목(오늘은 우리의 날) <명절을 만들어 주신 김일  
성 원수님께 인사드리지요. 원수님의 초상화에 꽂다발을 드립니다. 남조선  
어린이들은 이 기쁨을 모르고 오늘도 배고파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미국  
놈을 내쫓아 남조선 어린 동무 자라게 합시다>(李瑞行, 1980).

국통(1978)이 귀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북한의 유치원 교육내용을  
보면 공산주의 이념 주입 57.4%, 대한 대미적개심 고취 7.1%, 노래・춤・전  
쟁놀이・기초수학 기타 등이 14.2%, 무응답이 21.3%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때 유치원에서는 탁아소보다 사상교육이 강화되어 있음과 아울러 탁아소  
에서는 없던 知識教育(기초수학)이 들어감을 알 수 있다. 유치원의 상급반  
에서는 취학전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아동들이 人民學校에 들어가서 학교 교  
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조선 중앙연감 1974,  
1975>에 따르면 1972~1973학년로부터 실시된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의 교  
수내용은 “사회주의 교육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만 5세의 어린이들에게 김  
일성의 어린 시절을 따라 배우도록 하며 말을 정확히 하고 인민학교에 입학  
하여 교수내용을 알아 들을 수 있는 필요한 어휘를 습득시키며 연필 쥐는  
법과 글쓰는 법을 가르쳐 주고 물건을 정확히 세고 더하기와 <덜>빼기를 초

보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은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숙련을 체계적으로 높여줌으로써 모든 어린이들을 학교 교육에 전면적으로 준비시키었다” “또한 유치원 세 과정안에는 (김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공산주의 도덕) 등 사상정치 과목의 비중을 더욱 높이었으며 어린이들을 지·덕·체로 교육·교양하기 위하여 (우리 말)과 (노래), (춤) 등의 과목에도 많은 시간을 들였다. 이밖에 (체육)도 배우도록 하였으며 과외로 (과학·관찰) (위생) (놀이) 등도 가르쳐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以上의 내용으로 보아 유치원 상급반에서는 정치·사상교육과 더불어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準備教育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教育方法

앞에서도 밝힌 바 있는 사회주의 교육방법 중 하나는 <깨우쳐 주는 교수수양>으로 되어 있다. 학교 교육의 기본 형태는 教授이며, 교수의 기본방법은 깨우쳐 주는 것이라고 한다. <깨우쳐 주는 교수방법>이란 학생들 자신이 능동적인 思考活動을 통하여 교수내용을 깨닫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학생들의 사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討論과 論爭을 위주로 한 問答式 方法이 좋다고 한다. 즉 공산주의 사상은 強壓的 方法이나 注入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깨닫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설과 설복에 의하여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사물 현상과 과학적 원리에 대한 생동적인 이해를 촉진시키고 능동적 사고를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집관수단>을 이용한 <집관교육> <실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以上의 公式的으로 表現된 教育方法은 지극히 民主的이고 아동의 自律的思考成熟을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實質的인 教授形態은 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거니와 북한에서는 아동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김일성 수령님>이라는 말을 먼저 배우도록 하고 있다. 즉 아동의 思考體系가 형성되기 이전에 여러가지 강화방법을 동원하여 金日成 唯一思想을 注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과 교육자가 合理的이고 論理的인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공산주의를 理解한다기보다는 事前에 정해진 목표를一方的으로 教化한다는 것이 正確한 表現이

다. 실체적으로 北韓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특히 유아 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단적으로 強化의 原理를 사용한 教化라고 할 수 있다.

教化, 補償에 의한 強化, 條件化의 原理등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幼兒教育方法上의 原理로는 集團化가 있다. 바로 集團主義는 社會主義, 共產主義 社會生活의 基礎이며 공산주의자들의 活動原則이므로 早期부터 유아들을 託兒所와 幼稚園에 수용하여 生活하게 하는 것도 공산주의 사회에 必須的인 集團生活을 習慣化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託兒所·幼稚園의 兒童은 集團空間속에서 생활할 뿐 아니라 집단놀이, 집단게임 등을 통해서 집단의식을 형성하고 공고히 하게 되는 것이다.

#### IV. 北韓·소련의 早期教育의 效果

이미 지적한 대로 소련과 북한은 새로운 공산주의 인간 造形이라는 政治的目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發達初期부터 幼兒를 가정에서 분리시켜내고 유치원, 탁아소 등의 集團化된 교육기관에서 양육 및 훈육을 받게 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早期 政治社會化의 重要性을 일찍부터 강조하여 非公式의이고 無意圖의으로 作用하는 社會化'過程——예컨대 가정——을 철저히 제거하고 오로지 黨이 의도하는 바 公式的인 政治敎化만을 教育하기 위하여 早期教育을 義務化하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政治敎化 教育은 상당한 成果를 거두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방적인 政治敎化 教育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부작용 또한 無視할 수 없을 것이다. 人間은 그 存在 自體가 복합적이고 또 다양한 活動을 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어쩌면 이같은 부작용은 당연히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早期教育의 集團化, 制度化, 義務化, 政治敎化 等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교육의 문제를 몇 가지로 分類하여 論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소련·북한의 教育目標는 공산주의 사회에만 적합한 人間을 만드는 것으로 制限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이 강조하는 기본적인 德目은 복종이다. 유아는 어려서부터 어른들과 부모의 명령, 지시 등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습관을 배워야 한다. 自己의 意思를 形成할 겨를도 없이 강화, 조건화 등의 教育方法에 의해서 兒童은 服從을 체득화 한다. 그러므로 民主主義 社會에서 重하게 여기는 가치의 自律性, 創造性 等은 무시당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며 모든 兒童들은 純潔적 性品을 획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소련과 북한의 教育制度는 集團化에 그 特徵이 있다.

共產社會 生活의 기초가 集團主義를 前提로 하는 것이므로 集團化 教育은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集團化가 지나치게 강조될 때 個人의 自我正體性이 위협되고 正體危機가 닥쳐오는 경우가 있다. 또 個人的 인思考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人間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集團을 일탈하면 혹독한 自我비판을 하고 집단을 판단의 준거로 삼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째, 소련과 북한의 幼兒教育은 아동의 情緒를 重視하지 않는다. 아동기 부모와의 신체적・심리적 접촉을 통해서 情緒的 安定感과 人間美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초기부터 유아를 부모에게서 分離시켜 교육함으로써 상대적으로 情緒教育을 소홀히하게 된다. 託兒所나 幼稚園에서 보모들에 의해 주어지는 情緒教育은 가정에서 부모와 이루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幼兒들은 情緒를 缺乏한 機械化된 人間形으로 成長할 可能성이 많다.

네째, 傳統的 文化와 人類文化遺產의 破壞이다. 공산정권은 공산혁명 즉 기존체제의 파괴의 產物이다. 따라서 이런 혁명정권은 舊秩序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社會化 教育을 실시한다. 소련, 북한은 아동들에게 공산혁명에 필요한 혁명적 기질 즉 투쟁적・공격적 성격을 넣어주기 위하여 놀이와 장난감을 전쟁이나 혁명과 관련시켜서 구성하게 된다. 이는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好戰的인 性格이 배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심지어는 아동들이 부르는 동요・동화・노래에도 구질서라 간주되는 남한, 미국 등에 대한 투쟁심, 적개심을 불어넣는 내용 등이 많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런 結果로 傳統的 文化遺產을 敵對視하게 되고 民族의 思想의 源流를 斷切시키고 있다.

다섯째, 지나진 統制와 干渉은 또 하나의 특징이다. 中央黨이 모든 教育政策을 관장하여 指揮, 統制하고 純潔적인 계획에 의하여 아동들의 행동 하나 하나를 참견하고 지시한다. 소련에서는 이같은 간섭의 결과 젊은이들이 반항, 무관심, 불만, 도피, 비행, 회의 등에 빠지게 되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다. 이는 過剩統制로 인해 人間의 疏外現象이 두드러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간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오히려 逸脫現象을 낳은 것을 볼 때 앞으로 소련·북한 교육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교육학』, 사범대학용(교육도서출판사, 1969).
- 국토통일원, 『남북한 권력노선 비교』, 1979.
- ———, 『북한 이질화 실태 조사』, 1978.
- ———, 『북한 타아소제도의 문제점』, 1977.
- 朴容憲, “소련과 북한의 취학전 교육,” 『세계의 취학전 교육』(서울: 배영사, 1981).
- 北韓研究所, 『北韓』, 1978년 5월호.
- 「1972년 7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 5기 4차회의에서 행한 “10년제 중고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보고」, 김 성원, “北韓의 教育 및 家族政策,” 『北韓』(북한 연구소, 1980년 9월호).
- 북한 제 15기 14차 全員會議,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7.
- “先進의인 어린이 保育敎恭制度를 더욱 공고·발전시킨 데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 5기 제 6차회의에서 행한 政務院 報告, 『로동청년』, 1976. 4. 30.
- 李瑞行, “北韓의 思想敎育實態分析,” 『北韓』(北韓研究所, 1980년 8월호).
- 『조선중앙년감』, 1974~1976.
- 崔弘基, “北韓의 家族制度”, 『北韓社會論』(北韓研究所, 1977).

#### 〈국외 문헌〉

- Adolph, E.M.,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the 20th Century*,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49).
- Bronfenbrenner, Uriel, *The Changing of Society Family* (N.Y.: Pocket Books, 1973).
- Bronfenbrenner, Uriel, *Two Worlds of Childhood: U.S. & U.S.S.R.* (N.Y.: Russell Sage Foundation, 1970).
- Educational Testing Service, Henry Chauncey, ed., *Soviet Pre-school Education, Vol. II: Teacher's Commentary*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9).
- Hammer, D.P., *U.S.S.R.: The Politics of Oligarchy* (Hinsdale: The Dryden Press, 1974).
- Kline, G.L., *Soviet Education*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7).
- Meyer, A.G., *The Soviet Political System: An Interpretation* (N. Y.: Random House, 1965).

- Osborn, R.J., *The Evaluation of Soviet Politics*(Homewood, Illinois: The Dorsey Press, 1974).
- Ulich, R., *The Education of Nation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 Volgyes, I., *Political Socialization in Eastern Europe* (N.Y.: Praeger, 1975).